

SN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매년 영국에선 '채소판 미인대회'가 열린다

울퉁불퉁함 없이 동그란 모양의 감자, 끈끈이 빼어난 당근, 꽃다발 같은 꽃양배추. 이처럼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얼짱' 채소들을 선발하는 채소판 미인대회가 있다.

매년 영국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예쁜 채소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국립채소협회(National Vegetable Society)가 매년 9월마다 진행하는 내셔널 챔피언십은 15종류의 야채 중 60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잘생기고 예쁜 채소를 선발한다.

국립채소협회는 채소 재배 및 품종 개선을 위한 단체로 채소 재배자, 농업 전문가, 애호가들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 채소 재배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대회를 통해 우수한 품종을 발굴하고 있다.

경연대회 심사 기준은 채소의 심미적 매력, 모양, 크기, 색깔과 전반적인 재배 품질이다. 참가자들은 본인 이 재배한 채소를 출품하며 재배 기술과 열정을 뽐낼 수 있다.

올해 북부지방 해링턴 지역 우승 채소는 4종으로 감자, 비트, 대파, 샐러리로 크고 균형 있는 모습을 뽐냈다. 일반 채소 부문 외에도 작은 채소 부문 경연도 따로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모양의 채소를 만나볼 수 있다.



2024 예쁜 채소 경연대회 우승작의 모습. 국립채소협회 제공

#SnackNews #예쁜채소경연대회 #박소영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기상청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상 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해 출품하는 '기상기후사진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주제는 기상·기후 현상(비·눈·번개·무지개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뭄·홍수·대설·태풍·지진 등) 등으로, 현장을 생생히 전달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올해는 눈 속에 얼어붙은 한라산 백록담을 담은 '얼음 속 한라산' (김정국)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대상작은 2023년 '성벽을 향해 날아드는 불화살' (윤석주), 2022년 '국지성 호우' (김주형), 2021년 '안개주의보' (나기환), 2020년 '쌍용오름' (김택수) 등이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지를 꼽는 '2024 SRT 어워드'에 선정된 10개 지역 중 전라도는 7곳이 포함됐다. 먼저 전남에서는 거금대교와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이 유명한 우주항공 중심 도시 고흥과 해상케이블카에서 즐기는 항구도시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목포. 퍼플 등 1004개의 섬이 존재하고 여러 꽃축제가 연중 개최되는 신안, 땅끝전망대와 대홍사가 있는 해남이 포함됐다. 이어 전북에서는 '자연특별시'라는 별칭과 함께 적상산과 머루 와인이 유명한 무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왕궁리 유적 등이 있는 무주, 완주 등이 들어갔다.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어디일까? 1750년부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4167억 2308만톤, 전 세계 배출량의 24.6%(1조6965억 2417만톤)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연합(17.1%), 중국(13.9%)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1.1%로 18위다. 하지만 연간배출량으로 기준을 바꿔보면 중국이 1위(30.6%)를 기록 중이다. 2위 미국(13.5%)과 17.1% 차이가 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11월27일 오전 4시부터 60일간 휴전키로 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한 뒤 13개월 만이다.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이동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이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는 동시에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공습을 이어가며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 언제라도 휴전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